

Reactions

테마 돋보기

피할 수 없는 재난, 경험했다면 배워라

RC Report

토요일마다 문 여는 병원을 아시나요?
인천적십자병원 '누구나진료센터'

적십자 이야기

'위기에서 회복까지' 재난에 강한 도시로!

RC 캠페인

대한적십자사의 신규 캐릭터
세호(Say Ho, Saving Hopes!)를 소개합니다



온라인 소시지 보기

2024

가을 Autumn

대한적십자사 소식지

vol.579



우리 사회의 가장 촘촘한 안전망이 되겠습니다

더위가 저만치 물러가고 바람이 한결 시원해졌습니다. 힘든 시련을 극복하고 열매를 맺는 이 계절처럼 모든 가정에 풍요와 행복이 당기를 기원합니다. 8월 17일,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취임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이날 누구나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인천적십자병원 누구나진료센터에서 외국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 봉사를 하며 느낀 보람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발목을 빼끗해 2년을 고생한 외국인 환자께서 진료를 받고 좋아하셨다며 웃음을 되찾는 모습을 보고 새삼 적십자 활동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적십자 활동을 위해 기부해 주신 기부자님과 현장에서 활동해 주시는 봉사원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서 4월 25일은 인천에 이어 통영적십자병원에 누구나진료센터를 개소한 뜻깊은 날입니다. 의료시설 접근성이 떨어지는 섬마을을 직접 찾아가는 도서 순회진료도 병행하며 지역민의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서울, 상주, 거창, 영주, 원주 등에 누구나진료센터를 설립하여 더 많은 분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편찮으신 분들을 찾아 진료 봉사를 할 때와는 또 다른 차원의 책임을 통감할 때가 있습니다. 23명의 희생자를 낸 경기도 화성시 배터리 공장 화재 현장과 중남부지방 수해 현장으로 향한 대한적십자사는 아픔을 나누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제적십자운동의 일원이자 정부 인도주의 사업의 보조자로서 현장에 주저않은 희생자 가족들의 손을 잡으며, 이들을 끝까지 살피고 보듬겠다 다짐했습니다.

굳건한 마음과 뜨거운 인류애엔 국경이 없습니다. 튀르키예 대지진, 우크라이나 무력충돌 현장 등 세계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구호활동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적십자 활동은 단순한 구호를 넘어, 피해 지역사회의 회복과 재건을 위한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꿈꾸는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대한적십자사는 오늘도 한발 더 내디뎈답니다.

다가오는 10월 18일에는 대한적십자사 창립 119주년 기념식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닌 인도주의 정신과 봉사 정신을 되새기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특히 올해 신설된 정부 훈·포장을 시작으로 적십자 가족들을 향한 사회의 인정과 예우가 강화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존중과 예우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필요한 덕목입니다.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아야 함에도 현재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극단적 선택의 증가, 다문화가정의 문제 또한 곤경에 이르렀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치매예방활동과 자살예방교육을 운영하고 다문화가정 지원을 통해 누구나 행복하고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다져가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 회장 김철수



CONTENTS

- | | |
|--|---|
| 04 미리보기
안전이 기본이 되는 세상 | 18 당신의 응원으로 따뜻해질 오늘
암으로 멈춰버린 별이의 시간 |
| 06 테마 돋보기
피할 수 없는 재난, 경험했다면 배워라 | 20 RC 캠페인
대한적십자사의 신규 캐릭터 세호(Say Ho, Saving Hopes!)를 소개합니다 |
| 08 적십자 이야기
'위기에서 회복까지' 재난에 강한 도시로! | 22 레드크로스 아너스기업 Story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더 많이 나누는 사람들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 |
| 12 후원금,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안전한 세상, 따뜻한 세상을 위해 적십자는 계속 나아갑니다 2023년 교육·연구 사업 | 24 함께하는 RC
우리가 작은 힘이 될 수 있다면 대한적십자사 정일우·김다현 홍보대사 |
| 14 RC Report 1
훈련으로 단련된 우리, 재난 속에서도 하나되다 | 26 RC 퓌프
오직 '생명', 그거면 됩니다 |
| 16 RC Report 2
토요일마다 문 여는 병원을 아시나요? 인천적십자병원 '누구나진료센터' | 28 김경일의 마음 처방전
당신의 불안을 힘으로 바꾸는 법 |
| | 30 RedCross News
지역별 적십자 소식 |
| | 40 나눔이 희망입니다
나눔을 함께하는 분들 |
| | 43 빨간우체통
독자 의견 및 편집실 이야기 |

RedCross media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안전이 기본이 되는 세상

기술이 발달해도 재난과 피해 규모는 점점 더 예측이 어려워지는 세상.

대한적십자사는 이런 상황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훈련하여 재난 현장의 처음과 끝을 함께하려 합니다.

안전이 기본이 되는 세상, 그 안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대한적십자사가 더 빨리 달려가고 더 많은 생명을 지키겠습니다.



피할 수 없는 재난, 경험했다면 배워라

재난의 양상은 갈수록 더 다양해지고 피해 규모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누구든, 어디서든
안전한 세상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글 | 정지범 UNIST 도시환경공학과 교수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의 사고

기술이 발달하고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세상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거리를 확확 달리는 키보드와 전자자전거는 이동을 편하게 하지만 이용자들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희생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친환경 세상을 만들어 줄 것 같았던 전기차에서는 불이 나면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에서 발생한 것인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필수적 기술 중 하나인 배터리가 이제는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140여 대 이상의 차가 전소되거나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에서는 무려 23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미래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배터리 화재는 리튬이라는 금속의 화재입니다. 금속 화재는 일단 한번 불이 붙으면 열과 연기가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열폭주 현상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열폭주 상태의 배터리 화재는 물로도, 기존 소화기(ABC형)로도 진화할 수 없으며 오직 D형 소화기를 사용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이처럼 배터리 화재는 한번 발생하면 진화하기가 힘든 새로운 위협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올해 최악의 참사인 아리셀 화재에서는 정말 배터리만이 문제였을까요? 아리셀 참사 희생자 23명 중 18명이 외국인(중국 동포 17명, 라오스인 1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언어장벽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복잡한 고용관계로 얽힌 불법 파견노동자였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들에게 제대로 된 안전 교육과 대피 교육이 이루어졌을까요? 시설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험한 물질을 다루고 있는데 스프링클러 시설이 없었고, 비상 탈출로도 확보가 되



지 않았습니다. 비상구 앞에 인화물질(생산된 배터리)을 쌓아놓고 있어서 대피로가 막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화재 현장, 어디선가 본 듯한 기시감마저 드는 것 같습니다.

소를 잃었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

공장이나 창고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는 고질적이고 오래된 재난입니다. 1998년 부산 범창월드 플라자 화재(27명 사망), 2008년 이천 코리아2000 창고 화재(40명 사망), 그리고 비교적 최근인 2020년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화재(38명 사망) 등 이전의 대형 참사들은 모두 아리셀 참사와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설 내에 스프링클러 등 방화시설이 없었고, 건물은 인화성이 강한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했으며, 작업 현장에는 가연성 물질이 가득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과 작업장 안전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비상탈출로 확보도 미흡했었습니다. 현장 노동자 중 상당수가 외국인인 것도 유사합니다. 결국 아리셀 참사는 단순히 새로운 위협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자주 경험했던 사고의 답습일 뿐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고질적 문제점들이 새로운 위험과 결합할 때입니다. 새로운 위험은 우리의 오래된 문제와 결합하여 더욱 큰 피해를 발생시키곤 합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위험을 계속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했던 재난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더 큰 참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를 잃고서라도 외양간은 고쳐야 합니다. 잘 고쳤다면 새로운 위험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위험에 대한 관심과 주의는 필요하지만, 오래된 문제점에서 교훈을 얻고 제대로 고치는 것이 기본입니다. ●





‘위기에서 회복까지’ 재난에 강한 도시로!

대한적십자사는 2016년 국제적십자사연맹으로부터 아태지역 재난복원력센터를 유치 및
설립하고, 재난위험경감과 지역사회 복원력 강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난에 대비하고, 복원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적십자의 활동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함께해야 회복할 수 있다

01

지난 7월 2일부터 4일까지 대한적십자사와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은 서울 중구 한국의집에서 도시협력플랫폼(Urban Collaboration Platform, UCP) 국제회의를 열었습니다. UCP는 IFRC와 각국 적십자사가 도시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현안에 대해 검토하는 국제회의로, 올해는 ‘도시복원력 관련 지역사회 기후위기 대응 활동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7개국의 적십자사, 국제기구, 전 세계 기후위기·재난대응 전문가 100여 명이 서울에 모였습니다.

개회식에서 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은 “지구가 더워지는 글로벌 워밍(Global Warming)을 넘어 이제는 지구가 끓는다는 보일링(Boiling) 시대가 도래했다”라며 “이번 회의로 각 도시와 적십자사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대비와 회복력 강화를 위해서 새로운 협력 전략과 방법을 학습하고, 경험을 공유해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대한적십자사 기후위기 복원력 홍보대사인 가수 겸 배우 이승기는 ‘도시 기후 복원력: 함께 만들기’ 주제 발표에 나섰는데요. 그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효과적인 해결책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이날 ‘행동을 위한 도시 및 기후 관련 글로벌 의제’를 주제로 한 세션 발표에서 대한적십자사 박종술 사무총장은 “대한적십자사는 재난이 발생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라며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재난 피해민의 정서적 지원에 중점을 둔다”라는 활동 보고로 재난심리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는 “재난에 사람들이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아태재난복원력센터는 산발 대응 가상현실(VR)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등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국제회의를 통해 국가와 도시, 각국 적십자사,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자들은 연대와 협력을 통해 재난 관리와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는데요. 이번 회의로 모인 의견들은 향후 191개국의 정부와 적십자사를 통해 검토된 후 개선 방안을 마련, 적용될 계획입니다.

도시 기후 복원력을 위해 함께 행동해 주세요!

대한적십자사 이승기 기후위기 복원력 홍보대사



지난해 9월, 기후위기 복원력 홍보대사로 임명된 후부터 텀블러를 이용하고, 불필요한 불을 끄며,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플러그를 뽑는 등 일상에서 기후행동을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세계기상기구(WMO)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21년까지 극한 기상, 기후 및 물과 관련된 약 1만 2,000건의 재해가 발생했고, 2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중 90%는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했는데요. 기후변화는 빈곤층에게 더욱 큰 타격을 주기에 효과적인 정책과 지속가능한 해결책이 시급합니다. 한국도 폭염, 폭우 등 매년 기후변화를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저 역시 복원력 있는 도시,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항상 동참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해주시요.



당신의 마음은 괜찮은가요?

02

태풍, 화재, 교통사고, 감염병 등 각종 재난을 마주한 사람들은 마음을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외상이나 환경적 어려움은 시간이 지나면서 치료와 지원으로 극복할 수 있지만, 마음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장기적 후유증을 겪거나 인생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적십자사는 행정안전부의 위탁을 받아 전국 17개 시도에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재난경험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 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난으로 다친 마음에 위로가 필요할 때, 당신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마음 치료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Q 재난경험자들은 재난 후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그들이 말하는 어려움은 주로 무엇일까요?

대체로 사건을 경험한 당일이나 이튿날에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부정하거나 무덤덤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피곤함과 무기력을 느끼고, 시간이 더 지나면 슬픔, 분노, 신체적인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특히 신체적 손상이나 생명에 대한 위협을 경험한 분들의 경우, 이로 인한 트라우마는 심각성을 가늠하기 어려워 장기적인 심리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인천시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김은주 상담활동가

Q 기억에 남는 현상이 있나요?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내 전기자동차 화재 사건입니다. 상담 지원 활동 중 한 모자(母子)를 만났는데 어머니께서 화재를 겪은 아들의 마음을 크게 걱정하셨어요.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그림그리기 활동을 하며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긍정적·단계적으로 탐색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린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Q 어떤 마음으로 상담에 임하시는지, 재난경험자에게 전해주시는 말씀도 궁금합니다.

재난경험자를 만나는 일은 매우 조심스럽고 마음 아픈 일입니다.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고통을 감히 위로한다는 게 어찌면 무리일 수 있어서, 그냥 그 자리에 함께 있어 드리며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 알려드린다는 마음으로 찾아갑니다. 정말 심각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는 그저 손을 꼭 잡아드리고 어깨를 토닥여 드리면서 “식사는 하셨어요?”, “잠은 주무시는지요?”라고 안부를 물으며 그분들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옆에 있어 드립니다.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 홍수로 집이 무너져 대피한 경험이 있어, 그때를 떠올리며 재난경험자들을 늘 조심스럽게 마음을 다해 만나려고 합니다.

Q 마음 치료에도 골든타임이 있나요?

네, 존재합니다. 개인의 기질, 성격, 성장 환경, 그리고 삶의 경험에 따라 골든타임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재난경험자들의 심리적 반응 정도나 상황에 따라, 즉각적인 심리 치료가 개입되는 것이 최적의 골든타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장기적인 심리적 후유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Q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의 문은 어떤 분들을 향해 열려있나요?

폭염, 홍수, 화재와 같은 자연 재난부터 교통사고, 질병, 범죄와 같은 사회적 재난 모두 마음 돌봄, 즉 심리사회적지지 및 심리상담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복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마다 재난을 견디는 힘이 다르기에,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재난을 경험하고 있다면, 누구든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언제든지 저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길 바랍니다. ●



2023년 교육·연구 사업

안전한 세상, 따뜻한 세상을 위해 적십자는 계속 나아갑니다

01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

대한민국에 안전문화가 확산·정착할 수 있도록 국민을 대상으로 위기 대응 능력을 높여주는 안전지식을 보급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안전교육을 확대했습니다.

국민 안전지식 보급

교육생 총 32만 4,194명

응급처치 교육

수료 15만 8,468명

특강 14만 2,914명

수상안전 교육

수료 8,249명

특강 1만 4,563명

청소년 대상 안전교육 확대 운영



안전교육 총 1,849회



교육생 총 5만 3,837명

청소년 심폐소생술 안전교육 및
상황별 응급처치 지식 보급

1,155회

3만 9,858명

02

전문강사 양성 및 법정교육 확대

국민 모두가 안전교육을 받고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 강사 양성과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전문강사 양성 및 안정적 인력풀 확보



국가자격소지자
응급처치강사 과정 수료

454명



전문 강사
확보

234명

법정교육 지속적 확대 및 운영 안정화



시·도 교육청 연계
교직원 응급처치 운영

4만 6,058명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보급

4,087명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실 운영

694회

1만 3,979명

대한적십자사는 안전교육, 인도주의 실천, 국제인도법 제고를 위한 교육·연구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서 사회 안전망 구축과 인류애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적십자의 2023년 교육·연구 사업을 소개합니다. •

03

일상이 되는 안전

온·오프라인 학습의 장점을 결합한 블렌디드 러닝 방식의 온라인 응급처치 교육을 확대하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과 경연대회 등을 진행했습니다.

온라인 응급처치 과정 운영

교육생 총 1만 8,567명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1만 7,527명

심폐소생술

489명

응급처치 일반과정

551명

캠페인 및 경연대회 등 홍보활동

‘세계 응급처치의 날’ 캠페인 전개

• 온·오프라인 개최 131회 | 6만 4,352명 참여 • 언론 홍보 154회

응급처치 경연대회 개최 2,046명 참여

전국 심폐소생술 대회 42개 팀 168명 참여

04

함께 생각하는 인도주의

학술회의와 워크숍을 개최하여 인도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보급하여 인도주의 이념을 확산시켰습니다.

제5회 국제 인도주의 학술회의 개최



• 논문 8편 발표

• 등재지(우수 학술지) 게재(누적) 27편

휴머니티안 그림책 워크숍 개최



출품작 6편

• 〈파란 거인과 작은 사람들〉(이정국) 선정

• 2024년 출판 지원 및 원화 전시

05

깊이를 더하는 국제인도법

국제인도법과 근현대 역사학 분야 연구를 위한 전문 학술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적십자 표장과 적십자사 CI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적십자 표장 및 적십자사 CI 상표 출원



2024년 상표 등록 추진

제42회 국제인도법 세미나 개최



논문 3편 발표

국제인도법의 대중화 및 보급 활동



• 온라인 강좌 171명 수료

• 영화 <고지전> 상영 및 시네마토크

훈련으로 단련된 우리, 재난 속에서도 하나되다



지난 여름, 경기도 화성시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중남부 지방의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지체 없이 현장으로 달려가 구호활동을 펼치며 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는데요. 앞서 5월에 진행됐던 재난구호 종합훈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를 알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화마와 수마가 할취고 간 자리에 피어난 미소

6월 24일,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근로자 23명이 사망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가 화재 현장을 찾았을 때 공장 외벽은 배터리의 폭발로 인해 전소되어 있었고, 경찰과 소방대원이 복구 작업에 한창이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는 재빨리 화재 현장에 이동 급식차량과 회복지원차량 등 물자와 지원인력을 보내 구호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사고 당일 현장을 방문해 구호활동을 펼친 김철수 회장도 “유가족의 슬픔을 달래며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다”라고 굳은 의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적십자봉사원들은 화재 진압을 위해 불길 속에서 사투를 벌였던 소방대원들과 재난수습에 힘쓴 경찰관들에게 시원한 음료수와 도시락을 전달했습니다. 뜨끈한 국물을 들이키며 한숨 돌리는 대원들의 표정이 잠시나마 풀리는 순간입니다. 봉사원들과 더불어 경기도 재난심리회복센터의 재난심리활동가도 급파되어 현장에서 재난심리 상담활동을 진행하며 구호인력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왔습니다. 더불어 9월 16일까지 대국민 모금을 전개해 5억 894만 원을 모아 23명의 사망자 유족과 9명의 부상자 등에게 전액 전달했습니다. 7월 8일부터 19일까지는 중남부 지방에 집중호우가 쏟아져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재민의 참담한 심정을 대변하듯 마을 전체를 짙은 흙탕물이 뒤덮었는데요. 재난관리책임기관이자 구호지원기관인 대한적십자사는 긴급재난구호대책본부를 운영하여 2,600명의 적십자봉사원과 함께 경북, 충북, 충남, 전북, 대전 등 전국 각지의 수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집 안에 가득 찬 토사를 퍼내고 침수된 가재도구를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해 긴급구호텐트와 이동세탁차량, 회복지원차량 등을 지원하여 이재민들에게 삶의 터전을 속히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었습니다. 생필품과 함께 위로를 전하는 봉사원들의 손길에 이재민들의 얼굴에도 드디어 감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힘든 작업이었지만 시원한 물 한 모금과 따뜻한 위로로 건네며 함께 힘을 모으니 산적했던 어려움이 하나씩 해결되었습니다.

책임 있는 안전대비, 재난구호 종합훈련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자연재해지만 대한적십자사는 빠르게 달려가 정확하게 현장을 살피고 사람을 돌봐



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한적십자사는 재난구호 종합훈련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며 구호대원과 봉사원들의 재난대응 능력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2일에도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는 재난 상황을 가정해 ‘2024년도 1권역 재난구호 종합훈련’을 하였습니다. 이재민 대피소 및 구호급식소 설치·운영, 구호물품 접수 및 특수차량 운영, 유관기관 지원요청과 대응, 이재민 대상 심리회복 지원 등의 훈련 활동을 통해 실제와 같은 긴장감을 재현했습니다. 적십자봉사원들은 어떠한 재난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지역사회와 생명을 지킬 것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참여했고, 재난 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의 재난구호 종합훈련은 실제 재난 상황에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호활동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구호활동처럼 재난구호 종합훈련도 개인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해야 가능한 일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토요일마다 문 여는 병원을 아시나요?

인천 적십자병원 ‘누구나진료센터’

8월 17일 토요일 이른 아침,
인천적십자병원 누구나진료센터는
의료진, 봉사자, 환자들로 북적입니다.
이곳은 의료취약계층에게는 가문의
단비 같은 존재인데요. 차별 없는
의료의 시작점, 누구나진료센터를
찾았습니다.

아프면 누구나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어야

누구나진료센터는 병원비가 부담되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족, 난민,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인천적십자병원에 문을 열고 토요일(명절·공휴일 제외)마다 환자들을 만나왔는데요. 쉽지가 않았던 결과, 지난 6월에는 진료 100회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황금 같은 주말을 기꺼이 반납한 많은 이들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누구나진료센터는 의료진, 통역 및 안내 봉사자, 청소년적십자(RCY) 단원, 인천적십자병원 직원 등의 자원봉사와 기업들의 후원금으로 100% 운영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2024년 8월 현재까지 총 1만 5,000여 명이 진료 혜택을 받았습니다. 주로 이곳을 찾는 환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지에서 한국으로 온 외국인 근로자들입니다. 외국인 커뮤니티 내에서 진료센터가 입소문을 타면서 앞으로 6개월간 예약이 꽉 찼을 정도입니다.

이날 문진표 작성 봉사에 나선 대한간호협회 봉사단 박지영 씨는 “환자 중에서 뇌병변 장애와 파킨슨병을 앓고 계시는 분이 있었는데 문진을 해보니 치아도 되게 심각한 상태였다”라며 “낮선 땅에서 아픈 몸을 이끌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어 속상했는데 누구나진료센터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의료원



대외협력팀 서현진 과장은 “불법체류 등 건강보험이 없는 노동자들은 값비싼 의료비를 내야 하기 때문에 병원에 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병원을 간다 해도 소통이 어려워 아픈 곳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라며 “아프면 누구나 차별 없이 치료받아야 하기에 누구나진료센터는 모두의 기댔 곳이 되어주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취임 1년, 진료봉사로 함께한 김철수 회장

환자들은 자원봉사자의 안내에 따라 혈압과 혈당 등 활력징후를 측정한 후 문진표를 작성하고 진료를 기다렸습니다. 이날 진료는 베테랑 의사 두 분이 맡았는데, 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이 내과 진료를, 인천적십자병원 이정교 원장이 외과 진료를 전담했습니다. 김철수 회장은 지난 4월 누구나진료센터에서 진료봉사를 마친 후 앞으로도 자주 환자와 만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찾았습니다. 특별히 취임 1주년을 환자와 함께하면서 더욱 의미 있게 보낸 것입니다.

김 회장은 “적십자병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어려운 경영 상황 속에서도 소외계층을 위한 공공의료사업을 더 확대해왔다”라며 “대한적십자사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인천에 이어 통영적십자병원에 누구나진료센터 2호를 개소했습니다. 향후 지역 의료취약지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더 많은 진료센터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대한적십자사 의료원 대외협력팀 서현진 과장은 “전국에 있는 모든 적십자병원에 누구나진료센터를 여는 것이 목표지만 자원봉사와 후원금만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며 “누구나 건강한 사회를 위해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전했습니다. ●

누구나진료센터 수혜자

방글라데시에서 온 개사브 쿠마르 어디까지 씨

제가 누구나진료센터를 찾은 것은 총 세 번 정도 됩니다. 처음 찾은 것은 허리가 아파서였고, 이후에는 고혈압 치료를 위해 찾았습니다. 제가 직접 치료를 받아보니 좋아서, 아내와 직장동료도 데리고 함께 오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이지만 진심을 다해 치료해주는 모습에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한 무료 진료이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자원봉사로 이뤄진다는 것에 더욱 놀라웠어요. 의료진분들과 봉사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암으로 멈춰버린 별이의 시간

10살 소녀, 별이의 꿈은 친구들과 학교에서 뛰어노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당연한 일상이 별이에게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7살이 되던 해, 별이는 혈액암 판정을 받았는데요. 견디기 힘든 수술도,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었던 순간도 여러 차례입니다. 그러나 홀로 자신을 키우는 엄마를 위해 별이는 힘든 내색 없이 밝고 환한 웃음을 짓습니다. (본 사연의 대상자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힘든 항암 치료에 조금씩 지쳐가는 아이

갑자기 허리와 다리가 아프다는 별이. 엄마는 그저 성장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이 마비되고, 대소변도 가리지 못한 채 걷지도 못하는 별이를 안고 간 병원 에서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별이는 하루아침에 혈액암¹⁾ 판정을 받았 습니다. 더군다나 유잉육종²⁾이라는 희귀 질환까지 진단받았는데요. 이 질환은 한번 발병하면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재발 가능성도 높습니다. 별이도 재발 소견만 3차례. 병의 진행 속도가 빨라 MRI, CT 검사로 추적 관찰해야 하고, 전이된 곳은 계속해서 치료와 수술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별이는 현재 항암 치료를 멈췄습니다. 반복된 치료로 골수가 망가져 치료가 가능해질 정도만이라도 회복되길 기다리고 있는데요. 힘든 항암 치료를 잠시 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하는 별이에게 엄마는 앞으로 더 고통스러운 치료와 수술 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1) 혈액이나 림프 계통에 생기는 암으로 백혈병, 악성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이 있다.
2) 뼈에 생기는 소아암으로 골육종보다 더 악성인 희귀암.

후원 그 후



2024 < RedCross > 여름호에 실린 ‘우리 딸, 아빠가 꼭 살릴 거야’를 기억하시나요? 하린이를 향한 사랑과 관심으로 2024년 6월 부터 9월까지 총 8,051만 3,830원이 모아졌고, 하린이의 치료비와 시급한 생계비 지원에 4,0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하린이 에게 희망을 전달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남은 후원금 약 4,051만 원은 하린이와 같이 위기에 놓인 아이들의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엄마, 나도 죽어?”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별이는 알고 있습니다. 정이 든 병실 친구들이 하늘나라로 떠 났다는 것어요. 눈을 감고 잠이 들면 이대로 엄마를 만나지 못하게 될까 봐 잠드는 것 이 두렵습니다.

“아니, 우리 별이는 엄마가 꼭 지켜줄 거야.”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만 하는 엄마

별이네는 한부모 가정입니다. 큰 아이도 지적 장애를 앓고 있어 엄마는 홀로 두 아이 를 돌보느라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생계와 아이들의 치료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하지만 아픈 아이들을 돌봐야 하기에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수입이 없으니 빚은 눈덩 이처럼 커졌습니다.

결국 엄마도 몸과 마음이 고장나고 말았습니다. 유방암과 자궁 이상으로 세 차례나 큰 수술을 받았고, 갑상선 저하증으로 평생 약을 먹어야만 합니다. 그림자처럼 따라 다니는 근육통 때문에 진통제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몸. 그래도 엄마는 아이들 이 있기에 ‘내가 아프면 안 되지’라고 주문을 걸어봅니다.

건강한 친구들과 달리 몸에 큰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챈 별이는 철도 일찍 들어버렸 습니다. 엄마가 힘들까 봐 그 앞에선 아프지 않은 척, 씩씩하게 웃어넘기는 별이를 볼 때면 엄마는 그저 가엾고 기특하기만 합니다.

“우리 별이는 하고 싶은 것도, 가고 싶은 곳도 참 많은 아이예요.

그래서 별이가 더 아프기 전에 조금이라도 바깥세상을 보여주는 게 제 소원입니다.”

삶에 대한 의지가 누구보다 강했던 별이는 의사 선생님도 어려울 거라고 했던 걷기와 대소변 가리기가 가능해졌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는 별이의 가족에게 다시 일어설 힘 을 주세요. 별이에게 반짝반짝 빛나는 삶을 선물해 주세요.



후원 참여 방법

계좌 후원 우리은행 1005-002-719129
(예금주: 대한적십자사, 입금자명: 성명+별이)

홈페이지 후원 www.redcross.or.kr 접속 후 참여

후원 문의 1577-8179 (유료, 대한적십자사 후원 콜센터)



별이 후원하기

* 보내주신 후원금은 별이가 안정적으로 건강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에 우선 사용되며, 생계, 주거 등에 지원됩니다. 이후 모인 후원금은 별이와 같이 위기에 놓인 아이들을 위한 긴급 지원에 사용됩니다.

대한적십자사의 신규 캐릭터 쎬호(Say Ho, Saving Hopes!)를 소개합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난 나비의 날갯짓이 머나먼 도시에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사소한 변화가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대한적십자사는 나비 효과가 전파하는 긍정의 힘을 믿으며 새로운 캐릭터를 개발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날아가는 희망 독수리 쎬호와 친구들을 만나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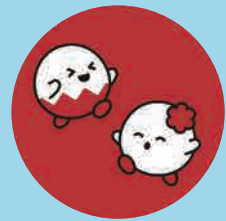
Say Ho~ 쎬호와 작은 알 친구들 나란&너란

생명을 구하고 희망을 전하기 위해 어디든 가는 쎬호!
수백 년 동안 지구의 평화와 인류의 생명을 지켜온 비밀의 섬, 희망을 비취도(島).
이 섬에는 특별한 능력을 지닌 아기 독수리 쎬호가 살고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쎬호가 날아가 생명을 구하고 희망을 전합니다.
여기저기 바빠 다니는 쎬호가 외로울까봐 걱정된다고요?
Oh, No! 걱정은 금물. 언제나 쎬호 곁엔 작은 알 친구들 나란&너란도 함께한답니다.



쎬호(Saving Hopes)

내 이름은 쎬호, 이래 봐도 독수리아.
많은 사람들의 귀여움을 한몸에 받고 있지만 알고 보면 힘이 제일 쎬호!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어디든지 날아간다구.
#초긍정 #희망찬 #행복 #독수리



너란 & 나란

쎬호와 함께 다니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활동 중인 우리는 너란, 그 리고 나란! 우린 아직 작은 알이라 무엇으로 태어날지 알 수 없지만, 무궁무진한 미래와 희망을 가지고 있지.
놀라지 마! 이 희망은 우리들만의 것이 아닌 너란, 나란, 모두 에게 주어진 것이야.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아주 작은 목소리도 잘 들을 수 있어. 쎬호가 날아갈 때 머리 위에 앉아 길잡이 역할도 하고 있다구. 너의 위급한 순간, 위로 받고 싶은 순간을 우리에게 알려줘. 쎬호와 함께 쑹~ 날아갈 테니!
#너란 #나란 #미래 #희망



쎬호와 친구들의 MBTI는?

쎬호와 친구들은 작은 몸집을 갖고 있지만, 작은 힘이 모여 큰 기적을 만들 듯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밉니다. 쎬호는 자신의 날갯짓으로 더 희망찬 세상을 만들 것이라 믿고 있어요. 초긍정 밝은 성격의 소유자, 희망의 아이콘 쎬호와 친구들은 오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날아가는 중입니다.
다 함께 Say Ho!



쎬호

동생처럼 아껴주고 싶은 존재, 최고의 파트너

생명의 은인, 동경의 대상



너란&나란

MBTI	재기발랄한 활동가 ENFP
성격	초긍정, 밝음, 외향적인
능력	강한 힘
취미	비행 연습, 봉사
좋아하는 것	고기
싫어하는 것	재난, 위협

MBTI	INTP / ESFP
성격	호기심이 많음 / 자유로움
능력	뛰어난 청각, 길찾기
취미	쎬호 따라다니기
좋아하는 것	쎬호
싫어하는 것	너무 큰 소리



쎬호 영상으로 만나기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더 많이 나누는 사람들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 267인(2024년 8월 기준, 익명 기부자 8명) 김선향 홍라희 유중근 이세웅 김초원 김윤희 송광자 안재욱 이병헌 김은용 이수만 오길순 백낙환 박해진 이승엽 전중희 최창걸 허완구 김영자 한일랑 이영건 이서래 홍경순 강욱재 최상준 김한 이선진 양문자 임형주 윤병철 남성희 김상태 김대근 김문자 최용혁 김정옥 김인순 이동건 김창남 김경배 황규철 김정규 허규현 이경호 채종성 박희순 윤금영 최광주 박재규 김철 이재남 전병순 강석종 석승환 송길자 권오록 박재홍 이영철 신현국 이성구 이용찬 유봉기 김택남 광경부 김일랑 광희순 김한성 김정수 김종기 홍종옥 김민호 한영수 이상록 전범수 임복희 장성훈 신동삼 박종근 송재승 김상호 신용구 김은재 정용 이현건 강신혁 이영해 김홍식 황인성 민경용 홍은영 최충경 이주영 고광만 김휘성 강영신 김철용 구한조 황세열 김용현 장예순 이상락 이언구 손덕임 구본무 최해상 윤옥자 정석관 박연차 김상열 김태영 정기호 권혁홍 박홍석 박병선 김범수 오현봉 강원선 이태호 한주식 송준기 황광자 백인계 허정 이승연 태연 김무임 남중현 서의수 박장배 김교숙 김경희 신숙경 오연서 최신원 서봉숙 최위승 강난파 허용수 문명재 박재연 이선홍 신수봉 서정의 김형일 윤신일 홍성열 류시문 신인철 공봉애 박재규 박춘영 김명화 고진호 이희방 김대환 박윤미 임은영 정규진 임순이 김석주 성점화 변순자 김영식 김자경 이종욱 양창홍 한재승 한재현 김수관 도경희 이종호 조정에 신현복 김진태 김명현 정재영 김복옥 김재복 정영화 강신애 이혜원 한광원 홍태희 문진석 강태선 김희철 윤미선 최영수 정성우 신정택 장대우 이승기 박순단 박명수 허인영 정요한 김홍수 정영진 김익기 주경숙 박승현 김남희 문은수 구정희 송경자 이현태 장영희 김경조 손창우 임경자 김우준 김애란 전중옥 박주환 유진종 이유순 황찬구 정진아 송옥희 오복진 서봉관 김철수 김병관 김홍국 김희철 장세욱 김선호 이강운 안응수 박재현 강중구 우현희 김미량 이종근 김영희 장오환 김효봉 장대식 정석현 이강원 박종택 정민혜 안준업 김윤철 신성민 윤진수 이정훈 양인준 강은희 조현숙 변정섭 정찬률 강영희 황중현 현중협 김동욱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



Red Cross Honors Club



개인고액기부자 모임
바로 가기





우리가 작은 힘이 될 수 있다면

대한적십자사 정일우·김다현 홍보대사

“대한적십자사가 하는 일 모르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적십자의 각종 사업을 많은 이에게 알리기 위해 팔방으로 뛰어다니는 사람들, 적십자 홍보대사입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배우 정일우가, 올해 7월에는 트로트 가수 김다현이 새롭게 적십자와 인연을 맺었는데요. 누군가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와 작은 행동이 큰 힘이 됨을 잘 아는 두 홍보대사는 각자의 방식으로 적십자와 함께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제빵 봉사로 선택 영향력

6월 19일, 대한적십자사 서부봉사관에 특별한 파티시에가 도착했습니다. 배우이자 대한적십자사 홍보대사인 정일우가 일본, 싱가포르, 헝가리, 도미니카공화국 등 9개국 주한외교대사 부인과 본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와 함께 제빵 봉사에 나선 것인데요. 이날 만들 빵으로는 특별히 구겔호프(독특한 링 팬에 구운 케이크)와 상투과자가 선정됐습니다. 강진경 제빵강사는 “오늘은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빵을 준비했다”라며 “익숙한 빵도 좋지만, 이번 기회로 어르신들이 다양한 빵을 맛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특별히 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사의 지도에 따라 정일우 홍보대사는 빵 반죽부터 빵틀 반죽 넣기, 오븐 굽기, 포장까지 전 과정에 함께했는데요. 처음 도전한 제빵에 반죽이 빠져 나오고 납작한 모양의 상투과자가 탄생했지만, 마음만은 진심으로 임했습니다. 이날 유일한 남성 봉사원이었던 정일우 홍보대사는 무거운 장비를 나르는 것부터 설거지까지 힘든 일도 마다않고 솔선수범했는데요. 그는 “적십자 홍보대사가 된 후 참여한 첫 봉사활동이 제빵 봉사인데 어려웠지만 즐거웠다”라며 “앞으로 어르신들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드리고, 청소년적십자 단원들과 해외 봉사활동도 다녀오고 싶다”라며 적십자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이날 만든 빵은 개별 포장되어 적십자에서 결연을 맺고 있는 인근의 홀몸노인 70가정에 전달되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정채영 부회장은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부드럽고 달콤한 빵을 준비했는데, 저희의 마음이 담긴 이 빵을 드시면서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라고 응원했습니다.



‘수해 복구에 써 달라’ 따뜻한 마음에 큰 울림

8월 7일에는 대한적십자사의 최연소 홍보대사인 국악 트로트 가수 김다현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해 4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김다현 홍보대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금산군에 충남지사를 통해 200만 원을 전달했고, 충북 영동군에도 200만 원을 추가 기부했는데요.

그는 “적십자의 수해 복구 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실의에 빠진 수재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기부는 김다현 홍보대사가 지난 7월 8일, 홍보대사로 위촉된 후 이뤄진 첫 기부이기도 한데요.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그는 “119년의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국내 최대 인도주의 기관인 대한적십자사의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영광이다”라며 “앞으로 가수 활동도 열심히 하면서 적십자 인도주의 행보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작은 약속을 실천으로 옮기면서 큰 울림을 주고 있는데요. 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은 “어린 나이임에도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에 기부로 동참한 김다현 홍보대사의 뜻에 따라 수해 지역 복구 지원에 기부금을 소중히 사용하겠다”라며 “앞으로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적십자와 함께 나눔의 가치를 알리고 대중문화를 이끌어 나갈 아티스트로 동반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두 홍보대사는 임기 동안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국 곳곳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재능기부를 통한 홍보물 촬영, 봉사원 격려 활동, 나눔문화 확산 등에 앞장설 예정입니다. 선행 영향력이 더 깊이, 멀리 뻗어나가 더욱 많은 이들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오직 ‘생명’, 그거면 됩니다

나이와 성별, 국적과 인종의 경계를 허물고 ‘생명’이라는 공통분모만 생각합니다.

다른 조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생명이면 그만입니다.

이것이 바로 적십자가 추구하는 인도주의의 핵심입니다.

수많은 재난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다시 살아내는 인도주의의 힘을 우리는 믿습니다.



당신의 불안을 힘으로 바꾸는 법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 2>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불안이’ 캐릭터는 경쟁이 심한 한국 사회에서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불안은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일까요? 불안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과 불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글 | 김경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불안은 긍정과 부정을 가진 양날의 검이다

불안이 삶에 미치는 영향과 불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불안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적절한 수준의 불안은 동기 부여가 되어 학업이나 업무 성과를 높일 수 있지만, 과도한 불안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불안을 경험하면서 학업이나 직업에 대한 성취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이 지나치게 커지면 특정한 일이나 영역에 집중하기 어려워지고, 오히려 성과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러한 사례를 자주 목격해 왔습니다. 몇 해 전 텍사스 A&M 대학교의 교수이자 심리학자 코니 바로소(Connie Barroso)¹⁾의 연구진은 이를 잘 보여주는 연구를 발표해서 세상의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연구진은 1992년부터 2018년까지 세계 각국에서 발표된 수학에 대한 불안과 수행 수준에 관한 연구 223개를 메타 분석했습니다. 수학 분야가 선정된 이유는 다른 분야에 비해 불안감이 높고 개인 간 차이가 커서 연구 대상으로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메타 분석은 유사한 주제로 연구된 여러 연구 결과를 통계적으로 종합하여 더 큰 그림을 보여주는 분석 방법으로, 이를 통해 중요한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상식적인 결과부터 알아봅시다. 수학에 대한 불안이 높을수록 수학과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시험 성적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의외의 사실들이 확인됐습니다. 수학에 대한 걱정이 수학에 대한 감수성(emotionality)을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불안을 느끼면 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회피하는 것인데요. 즉, 어려운 것일수록 절대 하지 않으려는 회피적 자세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²⁾

이러한 현상은 한국을 포함해 모든 국가에 걸쳐 인종 및 성별과 무관하게 일관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입시험처럼 중요한 시험부터 쪽지시험처럼 간단한 시험까지, 모든 평가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³⁾



그런데 또 다른 중요한 점은 평가나 학습에 대한 일반적인 불안과 수학 수행점수 사이의 상관은 매우 약하다는 것입니다.⁴⁾ 즉, 시험 자체가 학생들로 하여금 공부를 못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추가 연구를 통해 이 현상은 일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적에 대한 평가 자체가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 걸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불안과 공부 또는 일 사이의 관계에서 ‘포기’와 ‘집중’을 가르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 일까요? 바로 주변의 메시지입니다. 부정적인 메시지는 불안을 증폭시켜 포기를 부추기지만, 긍정적인 메시지는 불안을 해소하고 행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불안한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메시지와 격려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불안을 힘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역원이 필요하다

살아가면서 겪는 시험, 평가, 경쟁은 개인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동기 부여 요소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없애면 강한 성취욕을 가진 사람들의 의욕을 꺾을 수 있으며, 동기 부여가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최소한의 노력을 유발하는 긍정적인 안전장치마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즉, 피드백이 단순한 평가를 넘어 격려와 칭찬을 통해 개인의 성장을 돕는 긍정적인 도구로 활용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개인의 성장을 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잘 해왔고 앞으로도 충분히 해낼 수 있어”와 같은 성취에 대한 격려와 함께, “네가 이론 성과에 대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거야”라는 긍정적인 기대감을 함께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현재 불안하다면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로 여기고, 이미 절반은 해냈다고 생각하세요. 나머지 절반은 당신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말로 용기를 주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 사람이 타인이든지, 자기 자신이든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불안하다면 주저 없이 스스로에게 먼저 말해 보세요. “OO야, 넌 잘할 수 있어”라고 말합니다.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이 박빙의 승부처에서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들을 하는 것은 결코 헛된 행동이 아니니까요. ●



- 1) Barroso, C., Ganley, C. M., McGraw, A. L., Geer, E. A., Hart, S. A., & Daucourt, M. C. (2021). A meta-analysis of the relation between math anxiety and math achievement. *Psychological Bulletin*, 147(2), 134–168. <https://doi.org/10.1037/bul0000307>
- 2) 일반적인 숫자 감각(화면에 특정 도형이 몇 개나 있는가를 세는)을 측정할 때만 예외였다.
- 3) 즉, 남성이나 아시아권 국가 등 상대적으로 수학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던 집단 내에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뜻이다.
- 4) Cheung, K. C. (2017). The effects of resilience in learning variables on mathematical literacy performance: A study of learning characteristics of the academic resilient and advantaged low achievers in Shanghai, Singapore, Hong Kong, Taiwan and Korea. *Educational Psychology*, 37,965–982. <http://dx.doi.org/10.1080/01443410.2016.1194372>

김경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대표 인지심리학자로서 인간의 판단, 의사결정, 문제해결, 그리고 창의성에 관해 연구한다.
저서로 <마음의 지혜>, <김경일의 지혜로운 인간 생활>, <적정한 삶> 등이 있다.





본사

한반도 위기 상황 대비 방안 찾는 ‘민군작전 세미나’ 개최

대한적십자사와 합동참모본부 민군작전부는 6월 18일 우크라이나 무력충돌 상황을 통해 한반도 위기 시 대비 방안을 고민하는 ‘민군작전 정책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민군작전이란 재난 발생 시 대응과 인도적 지원, 분쟁 지역 안정화 및 재건 노력 등 인도주의 활동을 포함한 전·평시에 군이 민간인을 상대로 펼치는 대민 작전을 뜻한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는 우크라이나적십자사 막심 도첸코 사무총장이 발표자로 나서 무력충돌 상황에서 민군 작전 사례와 적십자의 활동에 대해 소개했다.



서울지사

우원식 국회의장, 희망풍차 나눔후원자 동참

지난 8월 14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희망풍차 나눔 캠페인에 동참했다. 희망풍차 나눔후원자는 지역사회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를 통합 지원하는 정기후원에 참여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장에서 지역사회와 이웃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시는 적십자봉사원들의 헌신이 인상 깊었다”라며 “십시일반의 소중한 정성들이 모여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이 오기를 희망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경기지사

생존수영 배워 아이들 지켜요

경기지사는 경기도교육청과 초등학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생존수영지도 역량강화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경기해양안전체험관과 여주시 수상센터에서 진행됐다. 교원들은 직접 생존수영 실기 과정을 배우는 한편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생존수영 지도법, 수중 생존하기, 종합구조 실습 등을 진행했다.



충북지사

충북 RCY 몽골서 해외 봉사 ‘아름다운 세상을 향해 전진’

충북지사 대학RCY는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몽골에서 아름다운 세상을 향해 전진’이라는 슬로건 아래 RCY 회원들은 애너럴 보육원과 가초르트 보육원 2곳에서 우정의 선물상자 전달과 나무 심기, K-POP 댄스, 풍선아트, 페이스페인팅, 화단조성 등 다채로운 활동을 진행했다.



부산지사

취약계층에게 생명을 살리는 응급처치 교육 전파

부산지사는 8월 21일 정신재활시설 ‘컴넷하우스’를 이용하는 지적장애인과 인솔자를 대상으로 무료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119 문자 신고’를 비롯하여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을 교육했으며, 따라 하기 쉬운 동작과 영상 자료를 선보여 수강생의 이해를 도왔다. 박초롱 사회복지사는 “교육을 통해 내 손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책임감과 자신감을 얻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인천지사

청라동 아파트 화재 피해 주민을 위한 긴급구호활동

인천지사는 8월 1일 발생한 청라동 아파트 전기차 화재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인천서북봉사관에 긴급구호 대피소를 설치하고 구호활동을 실시했다. 대피소 10개소에 쉼터 154개, 긴급구호 세트 498세트와 담요 100장을 지원하고 재난심리활동을 실시했다. 또한 단수 세대와 복구인력을 위해 사위차량, 회복차량을 현장 배치하고, 기부물품을 대피주민과 관리사무소에 전달했다.



경북지사

안동·영양·영천 등 수해 지역 재난구호활동 전개

경북지사는 7월 8일부터 14일까지 안동시·영양군·영천시 등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지역에서 재난구호활동을 전개했다. 경북지사는 행정기관과 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며, 이재민 및 복구인력을 위한 긴급구호물자, 특수차량 등을 신속히 지원하고 활발한 수해 복구 활동을 펼쳤다. 경북지사 김재왕 회장은 “도민들께서 십시일반 모아주신 적십자회비, 후원회비 덕분에 신속한 재난구호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제주지사

청솔적십자봉사회 사육 이전 지원금 2,170만 원 기탁

청솔적십자봉사회는 6월 5일 제주지사를 방문해 사육 이전 지원금 2,17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청솔봉사회 27명의 회원이 십시일반 자발적으로 기부해 마련됐다. 제주지사는 인도주의 활동과 재난구호책임기관의 역할 강화를 위해 이전하는 지사 신사옥 및 제2의 인재개발원 리모델링에 성금을 사용할 예정이다.

본사



한국외대와
‘인도주의 인재 양성’에 한뜻

대한적십자사는 7월 15일 한국외국어대학교와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며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인재 양성의 중요성에 대해 양 기관이 공감하면서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인도주의를 겸비한 글로벌 인재 성장 지원, 대학 RCY 활동 및 글로벌 봉사활동 지원, 대한적십자사 주최 각종 국제행사 시 자원봉사(통역 등) 기부문화 확산, 헌혈을 통한 생명나눔 실천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원폭피해자 건강상담 및
찾아가는 사업설명회 실시

대한적십자사는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합천 원폭피해자복지회관에서 원폭피해자 119명을 대상으로 건강상담 및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번 건강상담에는 일본적십자사 나가사키원폭병원과 나가사키대학병원 등 피폭 전문 의료진 4명이 방한해 원폭 피해 후유증을 겪는 피해자를 위한 의료상담에 참여하기도 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1986년부터 정부의 지원으로 한국인 원폭피해자를 위한 국내 진료를 시작했으며, 1991년부터는 한일 양국 정부로부터 원폭피해자 복지사업을 위임받아 실시해 오고 있다.



국제인도법
시네마 토크 개최

대한적십자사는 6월 22일 명동역 CGV 씨네 라이브러리에서 국제인도법 시네마 토크를 실시했다. 시네마 토크는 생소할 수 있는 국제인도법을 영화를 통해 살펴보고 인도주의와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프로그램이다. 영화 ‘핵소고지’를 단체 관람한 후 진행된 관객과의 대화에는 씨네21 남선우 기자, 육군사관학교 김희동 교수, 김영미 국제분쟁 전문 PD가 패널로 참여하여 국제인도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지사



여름철 재난 대비
긴급 구호물품 비축·점검

부산지사는 6월 26일, 여름철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적십자 재난구호요원과 적십자봉사원, 임직원 등 15명이 모여 긴급구호물품 1,500여 세트를 점검한 뒤 비축했다. 부산지사는 이동 급식차량 2대와 이동세탁차량 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재난 발생 시 구호활동에 즉시 참여할 수 있는 봉사원 8,000명을 확보하고 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에 평소 미리 대비하여 부산지사는 재난 발생 시 이재민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호활동을 펼치게 할 예정이다.



조광요턴(주),
미래세대를 위한 나눔 실천

6월 20일, 특수도로 생산 및 제조 분야의 세계적인 기업인 조광요턴(주)이 부산지사 레드크로스 아너스기업(부산 33호)에 가입하고, 명예의 전당 등재식을 가졌다. 조광요턴 홍민규 대표이사는 “자라나는 청소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과 기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라며 “미래세대 육성과 지역사회를 따뜻한 공동체로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다”라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의지를 밝혔다.



치매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에 앞장

부산시 치매안심센터는 8월 12일 부산지사를 치매극복선도단체로 지정하고 부산적십자회관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치매극복선도단체는 기관 구성원 전체가 치매 환자와 가족을 이해하기 위한 치매파트너 교육을 받고, 치매 극복 활동 및 치매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하는 단체이다. 부산지사는 7월, 임직원 전원과 봉사원이 치매파트너 교육을 이수했다. 향후 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해 치매 인식 길거리 캠페인 등 치매 관련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서울지사



노원구의회,
희망풍차 나눔명패 달기 동참

지난 6월, 서울시 노원구의회가 희망풍차 나눔 캠페인에 동참했다. 대한적십자사의 희망풍차 나눔명패 달기 캠페인은 지역사회를 위해 정기후원에 동참하는 곳들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며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캠페인 후원금은 위기가정 긴급지원과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사용된다. 노원구의회는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구의회 차원의 희망풍차 나눔명패 달기 캠페인(정기후원)에 동참했으며, 노원구의회 의원 6명은 정기후원에 개인적으로 동참해 그 의미를 더했다.



팔도 나눔봉사단,
음료 8,400개 기부

7월 4일, 종합식품기업 팔도의 사내 봉사단인 ‘나눔봉사단’이 음료 8,400개를 서울지사에 기탁했다. 팔도 나눔봉사단은 지역사회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지원하기 위해 팔도의 어린이 음료 브랜드 ‘뽕소다’ 제품을 기부했다. 서울지사는 기부한 음료를 서울 중랑구 열린지역아동센터 산하 23개 아동복지시설 720여 명의 아동·청소년들에게 전달했다. 한편, 팔도는 사회공헌활동 공로로 적십자 회원유공장 명예대장을 수상한 바 있다.



‘장어 먹고 힘내세요’ 고려아연,
취약계층을 위한 보양식 나눔

7월 9일, 고려아연 임직원과 적십자봉사원이 서울지사 북부봉사관에 모여 취약계층을 위한 여름철 보양식 나눔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이들은 장어구이를 직접 조리하고, 제철 과일과 함께 포장해 취약계층에게 전달했다. 이번 활동은 고려아연의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1,500만 원 상당의 이불세트도 함께 전달했다. 고려아연 김기준 지속가능경영본부장은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고려아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대구지사



삼은건설,
레드크로스 아너스기업 가입

6월 27일, 삼은건설은 대구지사 1억 원 이상 액기부모임인 레드크로스 아너스기업에 18번째로 가입하고, 가입식과 명예의 전당 등재식을 가졌다. 냉난방 공사업을 시행하는 삼은건설의 김하봉 대표는 “기부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점이 깊이 와닿았다. 기부 결정을 흔쾌히 지지해 준 가족들에게 고맙다”라며 가입 소감을 전했다. 삼은건설의 기부금 1억 원은 국내 위기가정 지원 등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지진 발생 대비
제2권역 재난구호훈련 실시

6월 25일, 대구지사는 재난 발생 대비 ‘제2권역 재난구호훈련’을 실시했다. 대구지사에서 실시한 훈련에는 대한적십자사 2권역 소속 기관(경북·충북지사, 대구경북철약원) 및 대구중부소방서, 대구중구보건소 등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훈련은 지진 발생에 따른 대규모 이재민 발생 상황을 가정해 이재민 대피소 설치, 아파무선 기지국 설치, 구호급식소 운영, 재난구호 특수차량 운영, 재난심리회복지원 활동, 응급의료 운영 등을 집중 점검했다.



폴토래,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닭 기부

7월 24일, 닭고기 전문 식품업체 폴토래는 대구지사에 사랑의 닭 9,195수(5,000만 원 상당)를 기부했다. 이번 기부물품은 폭염으로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폴토래가 기부한 닭은 8월 13일 대구 관내 9개 구·군 사회복지시설 49개소에 전달돼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자활근로 참여자들에게 제공되었다. 폴토래는 이전에도 대구지사에 사랑의 닭(2만 1,400수), 유정란(32만 4,000구)을 기부한 바 있으며,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인천지사



‘푸른 하늘 우리가 지킨다’
RCY 친환경 행사 개최

인천지사는 9월 7일 푸른 하늘의 날을 기념해 ‘Clean SKY, Green RCY’ 행사를 개최했다. 인천 시교육청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RCY 단원들에게 푸른 하늘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일깨우고자 기획됐다. 이날 행사에는 DIY 친환경 자동차 만들기, 기후변화 위기 대응 교육, 폐유리 석고방향제, 천연비누 만들기, 플라스틱 재활용, 인천 깃대종(생태계 대표종) 체험이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이 중심이 되어 생활 속 ESG 실천법을 고민하고 배워보는 계기가 됐다.



재난 대비,
서해5도 주민 섬 탈출 대응 훈련

인천지사는 8월 22일 ‘생명을 살리는 적십자, 모두가 안전한 인천’을 만들기 위한 지역특화 활동으로 서해5도 주민 탈출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이 훈련은 연평도 주민이 재난으로 출도할 경우 육지에서의 수용 구호를 내용으로 진행됐다. 인천지사는 이재민 접수부터 세대별 쉼터 안착, 급식과 구호물품 배부, 심리사회적 지지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훈련은 군·관·민이 협력한 모범적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후원)금 캐러 가요!
모금역량 강화 워크숍 실시

지난 7월, 인천지사는 강원도 일원에서 인도주의 활동 자원 마련을 위해 봉사원 모금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 참여한 우수봉사원 20여 명은 모금활동 노하우를 공유하고, 국립형성숲체원의 ‘활력 드림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후원)금 캐러 가요’ 활동을 통해 과거 황금 채굴광인 화암동굴 탐방과 연계해 모금활동을 즐겁고 흥미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왔다.

대전·세종지사



대학RCY, 국가유공자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 전달

대전·세종지사와 대전보훈청은 6월 19일 지사 1층 나눔카페 및 빵나눔터에서 국가유공자의 다른 이름 ‘오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올해로 6년째인 오늘 프로젝트는 대전·세종지역 대학RCY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을 바탕으로 국가유공자들과 결연을 맺고 그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사업이다.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국가유공자 취약계층 100세대에 직접 만든 케이크 및 생필품, 식료품 전달과 함께 안부 확인, 말벗 및 청소를 돕는 정서 지원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용촌동 침수 이재민을 위한
긴급구호활동 펼쳐

대전·세종지사는 7월 10일 발생한 서구 용촌동 정방마을 침수로 고립된 주민들을 위해 긴급구호활동을 펼쳤다. 기성종합사회복지관 대피소에 쉼터 30동, 긴급구호품 108세트, 비상식량 70세트, 2,060인분의 급식을 제공하고, 이재민 65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지원했다. 또한 적십자봉사원들은 서구 용촌동과 장안동에서 침수 피해 복구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토사 제거, 가재도구 정리 등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슬땀을 흘리며 이재민의 일상 복귀를 도왔다.



가족과 함께하는
재난안전체험캠프 성료

대전·세종지사는 8월 24일 ‘가족과 함께하는 재난안전체험캠프’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대전 시시설관리공단과 공동주관한 이번 캠프는 아동·청소년들의 재난 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한 시민참여형 안전교육으로 20가족 69명이 참여했다. 캠프 참가자들은 심폐소생술, 가상현실 재난체험, 생존수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재난 상황에 대비하는 법을 익혔다. 대전·세종지사는 올해 11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재난안전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울산지사



치매 이해를 향한 첫걸음,
치매파트너 교육 진행

울산지사는 7월 16~17일 적십자봉사원을 대상으로 치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치매파트너 교육을 진행했다. 지역사회에 치매 환자가 증가하는 현상에 대비해 치매를 이해하고 예방하고자 진행되는 치매파트너 교육은 이들에 나눠 진행됐으며 총 300명의 봉사원이 참여했다. 이번 교육은 울산시 광역치매센터 전문 강사가 진행했으며, 치매 증상을 알아보는 ‘치매 이해하기’와 ‘치매 예방활동’ 등으로 이뤄졌다.



울산 RCY위원회
라오스서 해외봉사활동 전개

울산지사 RCY위원회는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라오스에서 RCY위원회 해외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에는 RCY위원회 총 24명이 참여하여 라오스 아동·청소년들을 위해 물품을 전달하고 페인트칠, 선풍기 등 기자재를 지원해 학교 시설 개선에 도움을 줬다. 더불어 풍선아트, 한국 문화 체험, 기초위생 및 보건교육 등 다채로운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울산중양청과시장(주),
농촌 취약계층 위해 성금 전달

8월 1일, 울산중양청과시장(주)은 지역사회 농촌 지역의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적십자 희망나눔 성금 4,000만 원을 울산지사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울산중양청과시장 황찬규 사장은 “농촌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겪는 힘들음을 같이 이겨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울산중양청과시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나아가겠다”라고 전했다.

경기지사



경기도 및 한국마사회와
동물복지 증진에 맞손

경기지사는 7월 20일 여주시 반려마루에서 경기도 및 한국마사회와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마사회와 경기지사는 경기도 내 22개 직영·위탁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들에게 입양물품꾸러미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반려동물을 키우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돌봄 취약가구에도 반려동물 물품꾸러미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유기동물 입양 및 보호 캠페인을 전개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할 예정이다.



‘우리가 글로벌 인도주의 리더’
RCY 하계캠프 개최

경기지사가 ‘2024년 경기 RCY 하계캠프’를 내설악미리내캠프에서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간 실시했다. ‘기후 재난 없는 안전한 지구! RCY 기후행동 스타트 365!’ 주제로 진행된 이번 캠프는 ‘기후변화인자-기후난민체험-기후행동’으로 구성해 단원들이 기후 위기를 이해하고, 기후 행동을 통해 인도주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공동체 활동(팀빌딩, 레크리에이션 등), 예술제, 생태계 탐사 등을 통해 단원들의 공동체 의식을 배양했다.



선일테크이엔지(주),
아너스기업 경기 8호 가입

8월 21일, 선일테크이엔지(주)가 레드크로스 아너스기업 경기 8호로 가입했다. 선일테크이엔지는 동파 방지 댐퍼코일 전문기업으로 2014년 설립된 후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한 백미 기부, 지역사회 위기가정을 위한 씬스미가 바른기업 가입 등 지역사회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선일테크이엔지 양동일 대표이사는 경기지사 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강원 RCY, DMZ 역사 문화 탐방

강원지사는 7월 6일, 철원 DMZ 일원에서 강원 특별자치도 구석구석 ‘평화의 시작, 철원 DMZ’ 역사 문화 탐방을 진행했다. 강원도교육청이 지원하는 이번 활동에는 RCY 단원 및 지도교사 57명이 참여하여 철원 역사 문화 공원, 제2땅굴, 평화전망대, 월정역사에 방문해 평화와 통일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한 단원은 “이번 활동을 통해 남북 분단의 현실을 직접 체험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치매 인식 개선’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

강원지사는 7월 22일, 자사 로비에서 치매극복 선도단체 지정 및 헌판 전달식을 진행했다. 치매극복선도단체는 단체 구성원 모두가 치매 환자 가족을 이해하기 위한 치매파트너 교육을 받고 치매 극복 활동 및 치매 친화적 사회 구성에 적극 동참하는 단체를 의미한다. 지난 6월 강원지사 전 직원은 치매파트너 교육을 이수했다. 강원지사는 앞으로 치매극복선도단체로서 도내 치매 예방 및 치매 극복 활동 등 치매 인식 개선에 함께할 예정이다.



여름철 안전한 물놀이 문화 앞장 ‘안전 캠페인’ 실시

강원지사는 8월 3일, 강릉 경포해변에서 ‘2024 안전천 안전강원 물놀이 안전-CPR 보급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생명을 구하는 CPR 교육 및 AED 사용법 보급을 통해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등을 통해 안전불감증을 극복하고자 마련됐다. 강원지사 응급처치강사 및 수상안전강사 40명이 행사에 참여해 휴가철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응급처치법을 널리 보급했다.



봉사원 사기 진작과 화합을 위한 ‘봉사원 대회’ 성료

6월 5일, 충남지사는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적십자봉사원의 사기 진작과 화합을 위한 ‘충남 적십자봉사원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 충청남도 김태홍 도지사, 충남지사 문은수 회장 및 적십자봉사원 2,500여 명이 참석했다. 1부 행사는 기수단 및 봉사원 입장과 유공 봉사원 표창 등으로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적십자봉사원 간의 친목을 다지는 명랑운동회가 열렸다. 적십자봉사원들은 이날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며 서로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마음 한뜻 모아 충남지역 수해복구 지원

충남지사는 7월 14일 충남지역의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한 연합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활동을 위해 금산·공주·홍성·천안지구 봉사원 140여 명과 충남지사 직원 6명이 참여했다. 봉사원들은 금산군에서 세택 봉사와 피해 가구 및 깃잎 농가 비닐하우스 복구활동을 펼쳤으며, 서천군에서는 피해 건물 복구활동을, 논산시에서는 피해 주민과 복구활동 인력을 위한 급식 450인분을 지원했다. 한편, 충남지사에 기탁된 6억여 원은 피해를 입은 도민의 일상 복귀를 돕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RCY 71주년 기념, 전국캠프 성황리에 개최

8월 6일, RCY 71주년을 기념하는 ‘2024년 RCY 전국캠프’가 남서울대학교 및 천안 일대에서 전국 RCY 단원 및 지도교사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참가자들은 독립기념관에서 자주와 독립의 정신으로 지켜온 우리 민족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했다. 또한 통일 염원의 동산에서 통일의 종 타종식, 벽돌조적식을 통해 우리의 역사를 보고 배우며 애국심을 고취했다. 이와 함께 참가자들은 남서울대학교에서 단합운동회와 안전교육에 참여하며 교류의 시간도 가졌다.



청소년 대상, 진로 체험 및 환경보호 문화 확산

6월 1일, 충북지사는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고 생명 존중 및 환경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너의 꿈을 응원해’ 및 ‘지구야 미안해 고마워’ 행사를 진행했다. 충북 RCY위원회에서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RCY 단원 및 지도교사 120명과 대학 RCY 학생지도자 30명이 참여했으며, ㈜제이비컴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적성검사 및 특강을 제공했다. 특히, 충북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서 참가자들에게 심리지원 키트를 제공하고 청소년을 위한 심리지원 활동을 진행했다.



(주)건주, 따뜻한 사회문화 조성에 앞장

6월 17일, (주)건주가 충북 레드크로스 아너스기업 14호에 이름을 올렸다. 제천의 태양광 및 전기 전문 시공업체인 (주)건주는 1990년 설립 후, 태양광 주택 보급,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비롯해 송·변전, 배전, 철도 전차선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으로 시공하는 중견기업이다. 건주 안병만 대표이사는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에 함께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주)금진과 함께하는 말복 맞이 삼계탕 나눔

8월 14일, 충북지사는 청주시 옥산면복지회관에서 말복 맞이 삼계탕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활동은 (주)금진의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관내 어르신 200여 명에게 삼계탕을 대접했다. 벽지 생산 기업인 (주)금진은 평소 하천 정화, 이웃집 수리, 김장 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김진현 대표이사는 “삶의 윤택함을 제공하고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경영 이념인데,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일을 함으로써 경영이념을 실현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제38회 순직교육자 추모제 진행

6월 12일, 전북교육청이 주관하고 전북지사가 후원하는 ‘제38회 순직교육자 추모제’를 순직교육자 추모탑에서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교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마련됐다. 추모탑은 1968년 5월 15일 전라북도 청소년적십자(RCY) 2만 5,000여 명의 단원들이 스승의 덕을 추모하기 위해 폐품을 수집해 건립 기금을 모아 전주 종합경기장 안에 처음 세웠다.



부안군 지진 피해자 대상, 재난심리회복지원

전북지사는 6월 12일에 전북 부안군에서 발생한 규모 4.8의 지진으로 인해 불안감 및 우울감을 느끼는 지진 피해자를 대상으로 6월 12~14일까지 부안군청, 부안군 계획원 일대에서 심리상담소를 운영했다. 재난심리활동가 15명이 마을 단위로 방문해 현장에서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 복귀를 위해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지속적으로 재난 경험자의 심리회복 지원을 강화했다. 부안읍에 거주하는 지진 피해자는 “전문가의 상담으로 불안했던 마음이 진정되고 위안이 됐다”라고 전했다.



최형열 전북도의원, 희망풍차 결연세대 물품 전달

8월 29일, 전북도의회 최형열 의원이 적십자 봉사원들과 함께 전주시 내 희망풍차 결연세대 가구를 방문해 생활 안정을 위한 각종 물품을 전달하고, 위로와 격려를 전했다. 희망풍차 결연사업은 결연세대와 봉사원의 1대 1 결연을 통해 물품 전달과 더불어 정서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전북에서는 읍·면·동별로 구성된 4,500여 명의 봉사원들이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직접 발굴하고, 행정기관과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사



전국 대학RCY 인도주의 리더십 캠프 실시

7월 19~21일, 광주대학교에서 ‘전국 대학RCY 인도주의 리더십 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대학RCY 회원 및 직원 130여 명이 참가했다. 2박 3일에 걸쳐 진행된 이번 캠프에서는 리더십 명사 특강, 인도주의 리더십 연구, 스피치 리더십 등 인도주의의 리더십 교육뿐만 아니라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 방문, 학생지도자 활동 사례 공유와 DIY 뜨개질 봉사활동 등 친선·교류 활동도 함께 진행됐다.



광주·전남지사 회장 이·취임식 개최

7월 23일, 광주·전남지사는 양리뒤낭홀에서 제31대 허정 회장 및 제32대 박재홍 신임회장의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제32대 회장으로 취임한 박재홍 회장은 영무건설 회장으로 광주·전남지사 부회장을 역임하고,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에 가입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꾸준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재홍 신임회장은 “적십자의 재난구호와 인도주의 활동을 강화해 소외받는 이웃들이 없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인도주의 사업 자문위원회’ 발족

8월 28일, 광주·전남지사는 지역사회 인도주의 활동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도주의 사업 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 사업 자문위원회는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며, 광주·전남지역에서 나눔과 기부 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퍼트리고 있는 인사 10여 명으로 구성되었다. 향후 자문위원회는 인도주의의 재원 확보, 국민 참여 활성화 및 대국민 홍보, 적십자 조직 역량 강화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경남지사



폐지 수집 어르신 폭염예방에 앞장

8월 9일, 경남지사는 경상남도청 2층 도지사 접견실에서 폐지 수집 어르신 1,540명을 위한 폭염예방키트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경상남도 박완수 도지사, 경남지사 박희순 회장, 경상남도 신종우 복지여성국장이 참석했다. 경남지사가 준비한 폭염예방키트는 쿨스프레이, 쿨시트, 냉찜질팩 등 8가지 물품으로 구성돼 있다. 이 물품은 시·군·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적십자봉사원을 통해 폐지 수집 어르신들에게 전달되었다.



창원상공회의소-경남동부보훈지청과 사회공헌 협약 체결

7월 23일, 경남지사는 경남동부보훈지청, 창원상공회의소와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경철 경남동부보훈지청장, 창원상공회의소 최재호 회장, 경남지사 박희순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도내 ‘보훈·생명·나눔’ 문화 확산과 국가보훈 대상자와 지역사회 소외계층 지원사업에 협력한다. 특히 ESG 경영 강화 추세에 따라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ESG 실천기업’ 참여에도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상반기 봉사회 정기후원 시상 및 나눔문화위원 위촉

8월 13일, 경남지사는 2024년 상반기 봉사회 정기후원 시상 및 나눔문화위원 위촉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우수 봉사회(원) 시상을 통해 재원 조성 전문 봉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모금전력을 공유해 정기후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와 함께 하반기 나눔문화위원 2명을 신규 위촉했다. 경남지사 박희순 회장은 “앞으로 나눔문화위원들이 열심히 활동하실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경북지사



경북모금회와 함께하는 희망투게더 지원사업

6월 26일, 경북지사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도내 취약계층 1,200세대를 대상으로 매월 생필품 세트를 지원하는 희망투게더 지원사업 결과보고회를 진행했다. 양 기관은 작년 7월부터 총 1만 4,400세대, 2만 6,340명을 대상으로 3억 9,900만 원 상당의 희망투게더 물품세트를 지원했으며, 올해도 지원사업을 이어간다. 경북지사 김재왕 회장은 “희망투게더 지원사업은 나눔 문화 확산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있어 큰 의미가 있다”라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따뜻한 경북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전했다.



재난 대비 일시구조세트 3,000개 제작

7월 25일, 경북지사 적십자봉사회 예천지구협의회 소속 봉사원 등 총 30명은 재난 대비 일시구조세트 3,000개를 제작했다. 일시구조세트는 재난 발생 초기 일시대피자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제작됐다. 김재왕 회장은 “경북의 지리적·인구적 특성을 고려해 재난 예방에 있어 사전 대피가 중요하다”라며 “도민 생명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사전 대피 상황에 맞는 선제적 구호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캄보디아 어린이·청소년에게 우정의 선물상자 전달

7월 25~30일, 경북 RCY는 경북보건단체와 함께 캄보디아 캄퐁툽주 내 초등학교 및 어린이 환자 1,000명에게 경북 RCY 단원이 직접 제작한 ‘우정의 선물상자(학용품 세트)’를 지원했다. 지원물품은 (재)운정국제교육재단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경북지사는 기존 우정의 선물상자 지원사업을 2023년부터 경북보건단체 해외의료봉사과 연계해 실시하고 있다. 경북지사는 올해 총 2,100개의 선물상자를 도움이 필요한 저개발국가 청소년들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지사



풍수해 대비 재난구호 종합 훈련 실시

제주지사는 6월 4일 제주시 화북포구 일원에서 봉사원, 소방서, 자치경찰단 등 4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4 적십자 재난구호 종합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집중호우와 강풍이 발생했을 때 가족 침수로 인한 이재민 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됐다. 재난경보 발령, 현장 조사, 재난구호봉사단 비상소집 후 반별 임무 부여, 이재민 구조, 이재민 쉼터 설치, 급식 차량·사위차량 운영, 재난급식과 자원봉사반 긴급복구활동, 재난심리회복 상담, 드론을 이용한 방역 활동 순으로 훈련을 실시했다.



봉사원 노고 격려 ‘적십자봉사원 화합의 장’ 마련

제주지사 적십자봉사회 제주도협의회는 8월 24일 제주대학교 체육관에서 제주지사 정태근 회장을 비롯한 봉사원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3회 적십자봉사원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는 봉사원의 정서적 소진 예방과 봉사원 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장, 제주도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등이 방문해 봉사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블랙야크 강태선 회장, 나눔자서전 헌정식 개최

제주지사는 8월 11일 서귀포시 야크마을에서 블랙야크 강태선 회장의 나눔자서전 ‘블랙야크로 일군 도전과 나눔의 이야기’ 헌정식을 개최했다. 이날 헌정식은 강태선 회장, 제주지사 정태근 회장, 제민일보 오홍식 사장, 김문자 명예고문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악식으로 진행됐다. 자서전은 총 5장으로 구성됐으며, 가족사를 비롯해 블랙야크의 발전사, 강태선나눔재단 발족,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가능경영 및 적십자와 함께한 나눔경영 이야기를 담았다.

나눔을 함께하는 분들

누적 모금 총액(2023. 12. 1. ~ 2024. 8. 31.)

적십자회비 40,133,282천 원

정기후원 38,471,623천 원

프로그램 후원 내역 (2024. 6. 1. ~ 2024. 8. 31.)

사회공헌협약 체결

경기대학교 농촌진흥청·동아오츠카(주)재단법인자생의료재단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도로공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회협력 기부금품 내역

1억 원 이상 (주)빙그레 (주)씨제이이엔엠 KB증권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고려아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삼성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일사료(주)
주식회사플랜엠 중소기업은행임팩트비즈니스재단 한국토지주택공사

5,000만 원 이상 재단법인에이치현대일퍼센트나눔재단 크레아스튜디오 한국자산관리공사

1,000만 원 이상 (재)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 (주)다원시스 (주)세라젠 (주)엠오티
(주)호반건설 (주)호텔롯데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용노동부 김병관 김보곤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 모과군 병무청 서울경찰청 신한은행본점
지엔씨에너지 최영재

500만 원 이상 (재)예수병원유지재단 LG유플러스천원의사랑임직원

100만 원 이상 (사)대한미용사회 (재)성주재단 (주)글로벌오에이 (주)부산롯데호텔
(주)세이크엠이씨 (주)장수산업 (주)종합건축사사무소에이디디 (주)지엠아이
강성국*혜진 강중구 광고고는e치과 김구희 김상교 김영만 김장연
김충삼 김학균 김호남 김희영 남수현 남진선 대구교통공사참사랑봉사단
동양오피스텔 문혜정 박상순 박인숙 박지석 박효성 배성미 백성현
법제처 사단법인한국기능장애인협회 삼성개발 서재빈 송재선 심동현
심재근 안승환 양정은 에이치케이이노엔(주)오석진 용인중앙시장상인회
유한회사새소망병원장례식장 윤민영 의료법인인봉의료재단영등포병원
의료법인자인의료재단(더자인병원) 이강원 이광원 이두기 이성부 이성심
이성호 이태훈 인천도시공사 임기택 임소현 임정혁 장대식 장동석
장오환 장팔규 장형주 전북도시가스(주)정미화 조옥제 최승권 최종길
푸른건설주식회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성완 한수영 현세찬 홍소자
황복현 황중현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 현황 (1억 원 이상 고액기부자)

※가나다순(2024년 8월 31일 기준, 익명 기부자 8명, 중복 1명 포함 총 267명)

故정요한 강난파 강석종 강신재 강신혁 강영신 강영의 강옥재 강원선 강은희 강중구 강태선
고광만 고진호 공봉애 광경부 광희순 구본무 구정희 구한조 권오록 권혁홍 김경배 김경조 김경희
김교숙 김남근 김남희 김대곤 김대환 김동욱 김무임 김문자 김미량 김민호 김병수 김병관 김병숙
김봉욱 김상열 김상태 김상호 김석주 김선희 김선호 김성주 김수관 김애란 김영식 김영자
김영현 김영혜 김영화 김영희 김우준 김윤희 김윤철 김은용 김은재 김익기 김인순 김일량 김자경

김재봉 김정규 김정수 김종기 김진태 김창남 김철 김철수 김철용 김청옥 김초원 김태연 김태영
김택남 김한 김한성 김형일 김홍국 김홍수 김홍식 김효봉 김휘성 김희월 김희철 남성희 남중현
도경희 류시문 문명재 문은수 문진석 민경용 박명수 박병선 박순단 박승현 박연차 박윤미
박장배 박재규 (2회 가입) 박재연 박재천 박재홍 박주환 박종근 박종태 박준영 박해진 박홍석
박희순 백낙환 백인계 변순자 변정섭 서봉균 서봉숙 서의수 서정의 석승한 성점화 손덕임
손창우 송광자 송경자 송길자 송옥희 송재승 송준기 신동삼 신성민 신수봉 신숙경 신용구
신정택 신현국 신현봉 안응수 안재욱 안춘엽 양문자 양인준 양창홍 오길순 오복진 오연서 오현봉
우현희 유봉기 유종근 유진중 윤금영 윤미선 윤병철 윤신일 윤옥자 이강운 이강원 이경호 이도희
이동건 이병현 이상락 이상록 이서례 이선진 이선홍 이성구 이세웅 이수만 이승연 이승엽 이승기
이연구 이영건 이영철 이영해 이용찬 이유순 이재남 이정훈 이종욱 이주영 이준근 이준호
이태호 이현건 이현태 이혜원 이희방 임경하 임복희 임순이 임은영 임형주 장대식 장대우
장성훈 장세욱 장영희 장예순 장오환 정진아 전범수 전병순 전종욱 전중희 정규진 정기호
정민혜 정석관 정석현 정성우 정영화 정영진 정용 정찬틀 정재영 조경애 조현호 주경숙 채종성
최광주 최상준 최신원 최영수 최윤희 최위승 최장걸 최종경 최해성 한광원 한영수 한일량 한재승
한재현 한주식 허규현 허완구 허용수 허인영 허정 현중협 홍경순 홍라희 홍성열 홍은영 홍종욱
홍태희 황광자 황규철 황세열 황인성 황중현 황찬규

특별회비 (2024. 6. 1. ~ 2024. 8. 31.)

본사

100만 원 이상 원홍화

서울지사

500만 원 이상 김포공항(모금함) 서울전람(주)
100만 원 이상 RCY청소년오케스트라 김성규 배은성 백무균 불룸버그코리아유한회사
이경근 주식회사사더뮤즈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제이지스타
코리아리재보험주식회사

부산지사

1,000만 원 이상 최경란
500만 원 이상 (주)드림코리아 (주)신태원종합건설 (주)엔유
주식회사수기산업개발/설친진대표이사
100만 원 이상 (주)대강수산 김희원 동해강영(주)/박재열대표 부산광역시건축사회 서일범
안재문 이은정 최우석

대구지사

1,000만 원 이상 iM뱅크
500만 원 이상 대성에너지(주)주식회사메세이상
100만 원 이상 우리은행동산동지점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대구시간호사회
백창주 유진금속 이홍자 평화씨엠비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대구경북지역본부 한화시스템(주)

인천지사

1,000만 원 이상 (주)파버나인 (주)한미반도체
100만 원 이상 신한은행(본점)

울산지사

1억 원 이상 고려야연(주)은산제련소
1,000만 원 이상 S-OIL(주)은산공장 울산RCY위원회 울산항만공사
500만 원 이상 울산중앙청과시장(주)
100만 원 이상 보은금속 삼산적십자봉사회 우성종합중기 울산광역시여성후원회
울산여객봉사회 울산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사회통합위원회 일산동주민자치위원회 조용성
한국자산관리공사부산지역본부울산지사 한국특장차(주)

대전·세종지사

100만 원 이상 모은고등학교

경기지사

1,000만 원 이상 주식회사메세이상
500만 원 이상 한창기업(주)
100만 원 이상 유은조 윤금주 해성사랑인천방

강원지사

500만 원 이상 강원랜드
100만 원 이상 MBC강원영동 순천당약업(주)영귀미면봉사회 오션월드

충북지사

100만 원 이상 대한적십자사봉사회영동지구협의회 청주우체국

전북지사

1,000만 원 이상 김진태 대한예수교장로회효자추모관 주식회사지아이가 무기명
100만 원 이상 (주)오.케이 신한은행본점 재단법인하나금융나눔재단 전라북도교육청
전북개발공사 중소기업은행 피엔케이(P&K)홀딩스

광주·전남지사

1,000만 원 이상 (주)영무건설 (주)인성이엔지
500만 원 이상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100만 원 이상 (주)피디텍 나현애 대한적십자사봉사회광주전남협의회 박철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순모

경북지사

1,000만 원 이상 이찬원팬클럽Chan
500만 원 이상 (주)아이엠뱅크 경상북도
100만 원 이상 국민연금나눔재단 경원건설

경남지사

1,000만 원 이상 신화철강(주)유진중 한국가스공사부산경남지역본부
500만 원 이상 손아섭 중소기업은행
100만 원 이상 (주)대우전기공사 (주)성림테크지니어링 (주)아이스팩 (주)영남플룸 (주)유광씨앤씨
(합)대창강업 김경희 김상호 대동산업포장 대운교통(주)법무법인더도움
신한은행본점 양산시의회 양산지구협의회 우림테크 의료법인유천의료재단
임영웅영웅시대창원경남웅사랑방 임정한 정영순 주식회사대건테크
주식회사신성그린텍 주식회사지제이테크 주식회사칼텍코리아 창원정공(주)
태성회계법인 한국도로공사 흥한주택종합건설(주)

제주지사

1,000만 원 이상 (주)천마 송옥희 제주은행
500만 원 이상 제주개발공사
100만 원 이상 구좌적십자봉사회 나형진 소비자교육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양명순
정태근제주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참조은적십자봉사회
한라적십자봉사회 희망코리아제주도지부



신규 후원 회원 현황



대한적십자사 후원 프로그램

- 신규로 후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함께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QR코드를 통해 자신에 맞는 후원 프로그램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일상 속 작은 실천

온/라/인으로 RedCross 만나기

종이 소식을 온라인 소식지로 만나보세요



이렇게 참여해주세요!

적십자 콜센터



1577-8179 (유료)

QR 코드



온라인 소식지 신청

01

<RedCross> 웹진으로 보기!

<RedCross> 소식지가 웹진으로도 발행됩니다. 소식지를 웹진으로 구독하는 경우 연간 제작비와 발송비가 절감되어 더 많은 이웃을 도울 수 있습니다.

02

회원정보 최신화하기!!

적십자의 현장 소식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회원정보를 최신화해주세요. 우편물 반송이 줄어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03

대표 주소지 선정!!!

같은 주소로 여러 권의 소식지를 받으시나요? 한 주소당 한 권의 소식을 받아보며 더 많은 위기가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주세요!

※ 소식지 담당 직원이 발송 명단을 정리하면서 같은 주소지로 입력된 분들은 하나로 묶었습니다. 개별 발송이 필요한 분께선 02-3705-3754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RedCross>는 독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더 나은 소식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R 코드를 통해 2024년 <RedCross> 가을호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세요.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 2만 원권**을 보내드립니다.

<RedCross>와 언제나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dCross에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2024년 RedCross 여름호 독자 의견

박정란 경기도 수원시

‘기프트카 하트비트’ 기사를 인상 깊게 봤습니다. 간혹 뉴스에서 심폐소생술(CPR)로 응급 환자를 구했다는 소식을 접한 적이 있어요. 그때마다 어쩔 위급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안전 교육에 힘써주시는 분들이 계셨네요. 적십자와 현대차그룹이 정말 의미 있고 훌륭한 일을 하십니다.

최인숙 서울시 광진구

조카가 서울적십자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조카에게 왜 집에서 멀리 떨어진 적십자병원을 찾았냐고 물었지요. 그러니 조카가 예전에 이웃집에 불이 난 적이 있는데 적십자가 가장 먼저 달려와 도움을 주는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언제나 어려운 이웃 가까이에서 살뜰히 살피는 적십자의 활동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황지영 전라남도 여수시

김경일 교수님의 마음 처방전 기사가 유익했습니다. 몸과 마음의 상처 모두 같은 방법으로 치유해야 한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마음이 힘들수록 제 몸부터 잘 돌봐야겠습니다. 저는 적십자 후원회원인데요. 소식지를 볼 때마다 제가 후원하고 있다는 게 참 자랑스롭습니다. 봉사활동 소식, 참여 방법 등도 소개된다면 봉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공은주 경기도 군포시

김철수 회장이 직접 우크라이나에 방문한 기사 내용이 좋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서 무력충돌 현장을 찾아 한국 구급차를 전달하고 적십자 대원들을 격려하시는 모습에 큰 울림을 받았는데요. 덕분에 적십자에 대한 신뢰가 더 커졌습니다. 여름호 소식지는 현장감 있는 사진과 깔끔한 구성이 돋보여서 더 좋았습니다.

곽유하 대전시 중구

‘휴공 던지고, 꽃 심고 놀이처럼 즐거운 ESG’ 기사를 보면서 적십자가 ESG 활동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다양한 나눔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 좋았는데요. 수혜자에 대한 사례가 많이 소개된다면 저 같은 기부자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김준서 울산시 울주군

대한적십자사의 해외구호활동 기사를 잘 읽었습니다. 특히 안재욱 홍보대사가 튀르키예에 지진 현장을 찾아 위로를 전하는 모습에 가슴 뭉클했네요. 우리나라도 전쟁을 겪으며 도움을 받던 나라였는데, 이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됐다는 게 뜻깊고 감동적입니다. 부디 전쟁이 멈추고 세계 곳곳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나눔에 앞장선 여러분의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을 이메일(webmaster@redcross.or.kr)로 보내주세요.

희망지킴이 세호와 함께
생명을 살리는 적십자 활동에

함께 해 주세호!!



 대한적십자사